



서울특별시 감염병 소식지 제3호

발행: 서울시 감염병관리지원단 | 전화: 02-740-8891~3 | 홈페이지: <http://scdc.or.kr/>

예방을 위해 기침예절! 2주 이상 기침하면 결핵검진!

감염경로와 증상 알아보기



감염경로

- ▶ 전염성 결핵환자의 기침, 재채기, 대화 등을 통해 배출된 결핵균이 포함된 미세한 가래 방울이 일시적으로 공기 중에 떠 있게 되는데, 주위 사람들이 숨을 들이쉴 때 폐로 들어가서 감염



증상

- ▶ 2주 이상 기침, 발열, 흉부 통증, 피로, 식욕부진, 혈담, 각혈, 수면 중 식은땀, 체중감소
- * 감기 증상은 1주 정도 지나면 대부분 호전되므로 특별한 원인 없이 2주 이상 기침, 가래가 지속되면 결핵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의사의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음

예방법과 환자 발생 시 대처



예방법

- ▶ 건강관리 : 심한 피로, 스트레스, 무리한 체중감량 등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원인이 될 수 있음
- ▶ BCG 접종 : 생후 1개월 이내의 모든 신생아기에 접종하여 중증결핵 예방



환자 발생 시 대처

- ▶ 환자 : 철저한 복약, 업무 종사 및 등교를 일시 제한
- ▶ 접촉자 : 결핵(흉부X선검사, 객담검사 등) 및 잠복결핵(결핵피부반응검사) 감염 검진을 실시

* 결핵 검진은 가까운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가능

- ▶ 이럴 땐 결핵에 전염되지 않습니다
 - 음식을 같이 먹거나 악수를 할 때
 - 결핵환자가 사용했던 식기나 의복, 침구류, 책, 가구 등을 함께 사용할 때



전문가 칼럼 | '현재 진행형' 결핵예방관리, 가족·이웃에게 주는 선물



조준성(호흡기내과 전문의)
국립중앙의료원 호흡기내과

먼 옛날, 혹은 먼 나라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던 감염병의 출현이 21세기 4차 산업혁명을 앞둔 지금 대한민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옛날 어린 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로 시작됐던 과거의 경고문이 더 이상 추억이 될 수 없는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감염병을 인지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에이즈 즈음에서 부터다. 이후 예방교육과 에이즈 치료제의 발달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줄어들면서 이마저도 수그러들었다. 다만 그 자리에는 동물 전염병인 구제역과 조류독감을 비롯한 사스(SARS), 신종플루, 지카, 메르스(MERS) 등 지속적인 신종 감염병이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했다. 비로소 국가는 '감염병 재난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신종 감염병 대응에 총력을 기울였고, 향후에도 선제적 관리대책 강화와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감염병의 제왕'인 결핵은 이 범주에서 떨어져 있는 듯하다. 사실상 치료하지 않은 결핵의 사망률이 메르스의 사망률보다 높지만 이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1~2주 만에 생사를 가르는 급성질환인 메르스에 비해, 결핵은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만성질환이라는 점과 완치가 가능한 치료제가 있다는 점에서 일 것이다. 특히 결핵은 못사는 나라, 즉 후진국 병이라는 오명과 더불어 약만 잘 먹으면 치료된다는 느슨한 인식으로 인해 예방 및 관리가 소홀한 편이다.

그러나 감염병에서 결핵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다. 공기감염이라는 최상의 감염무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매우 작은 입자의 건조한 상태를 견딜 수 있으므로 꽃가루 날리듯이 공기 중에 브라운 운동(불규칙한 입자운동)을 통해 일정한 공간(지하철내부 또는 회사) 어디나 갈 수 있는 성격을 띤다. 따라서 강당과 같은 큰 공간에서 환자가 기침을 했을 때 옆에서 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도 전파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또한, 결핵은 서서히 진행하여 수개월 후에 증상이 나타나므로 누구에게 전염되었는지 알 수 없고, 감기 증상이나 만성피로로 오인하여 치료를 미루다보면 그 사이 주위의 많은 동료나 가족, 사람들에게 전염 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최근 신생아실, 산후조리원의 집단감염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결핵은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감염될지, 또 감염시킬지 모르는 '보이지 않는 공포'로 존재한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한 순간 재앙으로 뒤덮을지 모르는 수많은 감염병, 그 중에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지만 강력한 파급력을 지닌 결핵을 반드시 뒤돌아 봐야 한다.

결핵을 예방 관리하는데 있어서 이 두 가지만은 꼭 강조하고 싶다.

우선, 2주 이상의 기침을 하게 되면 대부분 감기 등 상기도 감염일 수 있으나 흉부X-선 등의 영상검사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가족, 학교, 직장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본인도 잠복결핵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쩌면, 혹시...'라는 전제 하에 검사를 하는 일이 소모적이고 귀찮은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멀리 내다보았을 때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집단감염의 재앙을 막는데 더없는 선물이 될 것이다. 미세먼지 등 호흡기 관련 질환에 대비하여 요즘 마스크의 보급률과 예방운동이 확산되는 만큼 나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기침소리에도 작은 관심을 기울여 보는 것은 어떨까. 결핵은 사라져 가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 지금도 꾸준히 그리고 앞으로도 퇴치해야 하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줬으면 한다. 결핵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과 홍보캠페인 강화의 필요성이 새삼 느껴지는 순간이다.